

후배 이끄는 여성 CEO...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본격화

중기부·여경협, 16개 校와 선포식
480명 선발... 예산 약 9억 새 편성
특강·멘토링·현장 체험 등 제공
우수 학생에 장학금·후속지원 예정

미래 여성 최고경영자(CEO)들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재계·정부·정치권이 뿔뿔 뭉쳤다.

여성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창업·취업을 돕기 위해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도 본격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에 따르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에 참여하는 16개 학교와 여경협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대학에선 수원여대, 광주여대가, 여성 특성화고에선 예림디자인고, 성암국제무역고, 대일관광고, 매향여자정보고, 안양문화고, 인천미래생활고, 대전신일여자고, 대전여자상고, 천안여상,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에 참여하는 16개 학교와 여경협 간 여성경제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청주여상, 전남여상, 광주여상, 목포여상, 학산고가 참여한다.

올해 처음 시작해 총 480명을 선발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성공한 선배 여성 CEO들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성CEO 특강 ▲실전 창업 멘토링 ▲여성기업 현장 체험 ▲미래여성경제인 워크숍 ▲글로벌 비즈니스탐방 등으로 꾸며진다.

이정환 여경협회장은 "이번 사업은 선배 여성 CEO들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반

복해 겪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로부터 시작했다"면서 "사업을 통해 우리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이론을 뛰어넘는 생생한 현장과 현실을 알려주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우리 후배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터트려 사회에 나가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비전 선포식에선 여성CEO 대표, 대학생 대표, 고등학생 대

표가 참여해 '비전 선언문'도 낭독했다. CEO들은 "선배 여성 기업인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후배들의 잠재력을 깨워 당당한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실한 토대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미래 CEO들은 "미래의 여성경제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중기부가 전방위로 힘을 보태 올해 9억원에 가

돈 주면 파양 가능한 신종펫샵...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파양·입소각서' 심사해
이전 소유자 관여 금지 조항 등 삭제
파양동물·비용 반환 요구 가능해져

반려동물 파양·분양 서비스를 하는 신종펫샵의 파양동물 반환이나 파양비용 환불 금지 조항 등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아이조아 서울점의 계약서인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신종펫샵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고양이. /유투이미지

부에 따르면, 국내 성인 5000명 중 반려동물 사육비율은 25.4%로 4명 중 1명 꼴로 반려동물을 기른다. 이 가운데 22.1%는 사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고, 그 이유는 '물건훼손·짓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

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산보다 지출이 많음'(26%),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1%) 순이다.

반려동물의 새 주인을 곧바로 찾을 수 없는 주인들은, 유기나 안락사 보다는 해당 동물을 맡아 보호·관리를 하는 사업자를 찾게 되는데, 신종펫샵은 이런 고객들로부터 반려동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비용을 받는다. 비용은 새 주인을 만날 때까지 소요되는 동물 관리비와 중개수수료 성격으로 동물의 성질이나 분양시점 등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소위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라는 명목으로 파양된 반려동물을 맡아 관리해주는 사업자의 '파양·입소각서'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불공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접수해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된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엔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비를 지불하면 사업자는 해당 동물을 새 주인에게 입양보내거나 보호·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사업자가 보

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양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돼 사업자의 의무가 중단되고 고객은 파양동물을 즉시 데려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미지급 파양비에 대해 14일 이내 납입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채무 중단 및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삭제했다.

또,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 지연 시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은 손해배상액으로 연 6% 이하를 규정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약관이 아이조아의 서울 가맹점 약관이지만, 해당 가맹점의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약관인 만큼,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불공정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기중앙회, 포스코와 中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비 60% 이내... 30개社 모집

중소기업중앙회가 포스코와 함께 '2023년 대·중소 상생형 포스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9년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419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도운 이 사업은 올해 30개사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포스코는 관련 사업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각 20억원씩 지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및 포스코와 함께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신청은 포스코와 거래관계 없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0월부터 이달 23일까지다. 참여기업은 지원

유형에 따라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6000만~2억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간이지동화 또는 간이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엔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초' 과제 지원을 지속하고, 정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정책 방향에 발맞춰 '고도화' 과제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참여기업에게는 QSS(Quick Six Sigma) 컨설팅을 통한 포스코 혁신방법론 전수와 동반성장지원단을 활용한 현장방문과 지도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포스코의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대·중기 상생의 모범사례로,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의 발판으로서 기여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중소 상생형 포스코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나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전과 비교해 ▲품질 향상 29.7% ▲납기 단축 20.3% ▲생산성 증가 17.5%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 및 참여 방법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련 문의는 스마트산업실로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한국항공公, UAM 핵심기술 교류 워크숍

美 조비에이션社와 협력 방안 논의

한국항공공사가 '2025년 UAM 상용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세계 최고의 UAM 항공기 기술력을 보유한 美 조비에이션(Joby Aviation)사와 도심항공교통(UAM) 핵심기술 교류워크숍을 8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43년간 쌓아온 공항과 항공관제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AM이착륙장(버티포트)과 교통관리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특히 양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련 핵심기술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조비의 그렉 볼스 대정부 협력분야 총괄임원, 에릭 앨리

슨 서비스 분야 총괄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공사에서는 윤형중 사장과 경영진 등이 참여했다.

양측은 공사에서 추진 중인 UAM이착륙장·교통관리시스템과 조비 기술의 상호 연동성을 점검하고 상용화 일정 등을 공유하였으며, 김포공항 UAM 허브 이착륙장 준비현황을 확인하고 예정지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 UAM 상용화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윤형중 공사 사장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조비와 기술·인증·인프라 구축 정보공유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2025년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